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박종화



음악은 언어와 달리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노래나 교향곡에 담긴 선율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만들어지지는 어렵다. 만약 심금을 울리는 선율이 매력적인 차이코프스키 6번 교향곡의 제목이 '비창'이 아니라 '행복한 하루'였다면, 이 곡을 기만하는 것은 음악의 제목일 뿐이지 음악 자체가 될 수는 없다.

달콤화음이 으뜸3화음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른 화음으로 진행되는 경우인 '거짓 마침(Deceptive Cadence)'도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올 화음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이다. 음악은 기만의 도구가 아니다.

반면 언어는 누군가를 기만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영리한 정보라도 청중들로 하여금 신념과 확신이 가득 찬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꾸며낼 수 있다. 물론 음악에서도 신념과 확신이 찬 연주가 연주자의 기대와는 달리 청중들에게는 다른 의도로 영통하게 전달될 수는 있다. 이것은 고의가 아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미세한 반응을 보이는 등 표식이 난다. 거짓을 말할 때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얼굴 근육들의 경련, 빨라지는 맥박, 높아지는 체온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훈련을 받거나, 잘못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진실을 가려낼 수 있다.

진실은 상대적이지 주관적이지만 음악을 통해 느끼는 주관적인 진실의 관계는 절대적이면서도 객관적이다. 연주자의 신체적인 반응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음악을 구성하는 '그릇(medium)'과 '콘텐츠(message)'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결합물이기 때문이다.

음악을 지배하는 3개의 원칙은 리듬, 화음, 멜로디이다. 이 원칙들이 모두 존중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한다는 기본을 느낀다. 하지만 이 원칙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음악이 아름답기는커녕 지루하거나 짜증이 날 정도로 불쾌한 경험이나 될 수 있다. 이 3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음악이 완성된다면 감동적인 연주를 청중과 나눌 수 있다.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성실하게 준비를 안 했거나 해석의 의도가 불명확하면, 연주자의 모습 속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비슷한

## 음악 안의 거짓

증상을 관찰하게 된다.

실, 화음을 어졌을 때 나타나는 '화음의 질감' 증상을 꼽을 수 있다. 화음이 변할 때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연주의 개별적인 표현이나 색깔, 밸런스가 모호해져 의미 없는 연주가 되어버린다. 화음은 저마다의 개성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귀를 열어 잘 듣고 연주한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리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리듬의 자동화' 증상이 일어난다. 큰 가치의 음들을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연주한 나머지 작은 가치의 음들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4개의 16분음표는 하나의 4분

음표와 똑같지 않다. 작은 음들은 민첩하게 움직이고 큰 음들은 더 여유있게 움직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곡의 구조와 물리를 등한시 하는 연주자에게는 '끊임없는 곡수' 현상이 관찰된다. 이것은 긴 선율을 세분화 시키지 않고 하나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열 개의 음이 넘는 선율을 리듬을 바탕으로 구조적으로 세분화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무언극의 절정'은 곡의 본질과 목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연주자가 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연주할 때 불필요한 동작들을 연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연주자는 머리, 팔, 몸을 불필요하게 움직이거나 얼굴 표정을 일부러 연기하는 모습을 보인다. 클래식 음악가의 바다랭귀지는 억지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요구와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음악도 때로는 연주자의 불성실함에 의하여 청중에게는 고의 아닌 거짓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진정한 연주자라면 음악을 지배하는 원칙에 성실해야 한다. 청중 또한 연주자의 증상을 잘 관찰해 연주에 대한 참된 의견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서울대 교수·피아니스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만이 미래 있다

마침내 12월 대권 고지를 향한 3각 대전의 막이 올랐다. 범야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초반 대선관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합당 문재인, 안 원장 간 3자 구도로 짜여졌다. 대선을 90일 앞두고 세 주자의 진검승부가 시작된 것이다.

대선관을 뒤흔들 최대 변수인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야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안 후보가 독자노선을 걸어 3자 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 야권의 필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절박감에서다.

안 후보도 이날 "단일화 논의할 시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거리를 두었지만, 분위기가 선속되는 시점에 단일화 선택은 자명하다. 대선 출마를 한 이상 독자 노선으로 나선이 뻔한 대의를 외면할 순 노릇이다. 문 후보도 안 후보와의 단일화 연대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에 이력내고, 그 전제로 공동 정부를 제안한 상태여서 이미 명석은

갈라진 셈이다. 민주당 경선 1위의 문 후보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안 후보와 정면 대결이 성사된다면 대선의 분선을 방해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 마이니치를 벗어나 메이저리거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 사람들 역시 단일화만이 최선책이라는 판단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호남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예산과 국책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현실에서 달리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박근혜 후보가 인사당평책을 제시하는 등 지역균형 차원의 행보를 하고 있지만 호남 민심이 여전히 야권에 있는 마당에 기대는 무리일 수 있다.

이제, 민주당과 문 후보는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단일화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며, 안 후보 역시 시간끌기 보다 속히 결단을 내려 '원-원 게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광주시, '어등산 골프장' 싹개장 특혜 안된다

광주시민의 휴식처가 돼야 할 어등산 개발이 결국 27홀짜리 골프장으로 전락하게 될 때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시가 골프장 선(先)개장 문제로 사업자와 법적 분쟁을 빚어온 어등산개발에 대해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법원의 강제 조정결정 이의신청 마감시한인 19일 조정안을 받아들여기로 확정했다. 따라서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어등산개발의 애초 취지가 사라지고, 골프장과 유통단지만 남은 기형적 구조가 될 우려가 크다.

법원의 조정안은 어등산개발 사업자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전체 사업부지 가운데 경관녹지와 유티지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골프장(27홀)을 운영하는 경우 대중제(9홀) 운영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신설)에 기부하도록 했다.

시가 결국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해 왔던 '시민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 사업장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골프장만을 개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강시장이 시민을 배반한 것이지 시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 시장은 지난 4월 간부회의에서 "어등산개발의 핵심은 테마파크를 잘 만들어 시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며, 골프장은 그 사업의 인센티브일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그 발언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어등산개발은 포병학교 사격장으로 폐허가 된 부지를 시민휴식공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이양받아 민간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골프장 우선 개장은 사업자만 특혜를 받게 되고, 어등산개발협약에 명시된 '테마파크와 함께 개장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는 어등산개발의 당초 취지를 살려 모든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할 것이다.

## 나라사랑 칼럼



윤경식

###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라사랑

위해 춤을 춘다고 생각하는 시청자들은 거 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품과 문화가 전세계로 뻗어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노래하고 춤추는 연예인들이 큰 애국을 한 것이 됐다고 봐야 한다. 나라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애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래와 춤을 추는 것도 나라사랑이 되는 시대가 됐다.

10~2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나라였다. 일부 식당의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금은 백화점과 고급 식당같은 큰 영업점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점포의 화장실도 깨끗하다. 외국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품과 언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에 비례해 국력신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장실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외국 관광객을 늘리는 나라사랑인 것이다.

다른 또래 친구들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소녀 김연아는 바쁘고도 힘든 피겨 연습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연습한 결과 김연아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고, 피겨 관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성장했다. 이 어린 피겨 새싹들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을 위해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미국산 다리아미와 일제 라디오가 최고인 줄로 알고 우리나라 제품들은 한국인들도 불신하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이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의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 애플과 최첨단 기술을 다투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던 선진국들이 작은 나라 한국의 제품들에 대해 보호무역적 태도를 취하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일제시대 독립투사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난이나 쓰라림을 듣고 보면서 우리가

라가 잘 살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과 힘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 독도문제와 남북분단의 아픔도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 잘사는 나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 현재 내가 처한 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외국인에게 바가지 택시요금으로 그들의 기본을 상하게 하거나 난폭운전과 욕설로 그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모두 어렵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의 발걸음과 마음을 우리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족간에 화합이 되어야 돈도 모아 잘 살게 되고 힘이 있게 된다. 가족간에 불화가 있으면 부유해지기도 힘들고 그 가족은 약해진다. 가족이 화합하려면 구성원간에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 나라사랑은 각자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지극히 쉬운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광주지방교정청장)

## 의료 칼럼



양태영

### 슈베르트와 쯔쯔가무시

발생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쯔쯔가무시균이 질환에 속한다.

요즘처럼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에 접어들면 자연스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데 이 시기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쯔쯔가무시균, 유행성출혈열, 렘보스피라증이다.

세 가지 질환은 모두 쥐와 연관이 있지만 병원체와 감염경로는 각각 다르다.

쯔쯔가무시균은 쥐에 사는 진드기가 물어서 발생하며, 유행성출혈열은 쥐의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또한 렘보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주로 쥐)의 소변으로 오염된 하천이나 호수에서 물놀이를 할 때 상처가 있는 피부와 점막을 통해 감염된다.

이 세가지 모든 질환이 초기에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심한 몸살감과 비슷해 단순

한 감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치료는 감기와 전혀 다르고 이 세가지 질환 역시 각각의 치료법 및 예후가 차이나므로 감별이 중요하다.

쯔쯔가무시균은 발열이 시작되고 1주일 정도 지나면 암적색의 반점이 몸통에서 나타나 사지로 퍼져 나가며, 피부에 특징적인 가피(딱지)가 생겨 다른 질환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유행성출혈열은 급격히 나타나는 고열과 오한, 결막출혈 및 입천장과 겨드랑이의 점상출혈이 대표적인 증상이며, 혈압이 떨어지거나 소변이 나오지 않은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렘보스피라증은 이상한 형태의 발열, 수막염, 발진, 황달, 신부전, 객혈을 동반하는 호흡기증상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나 유행성

출혈열과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다.

다행히 가장 심각한 질환인 유행성출혈열은 예방백신이 있으므로 야외활동이 많은 군인과 농부들은 매년 접종을 해야 하며, 쯔쯔가무시균과 렘보스피라증은 예방백신이 없지만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특효항생제가 있으므로 조기진단 및 치료가 필수적이다.

예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모든 질환이 들쥐와 연관되므로 풀밭에 눕거나 걸을 때 풀밭에 밟아 놓으면 안된다. 또한 오염된 개천이나 강물에 들어가거나 오염된 곳에서 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야외에서 작업할 때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장화 등을 신는 것이 좋다. 쥐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있는 밧줄 등을 다룰 때는 고무 장갑이나 앞치마를 입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이 질환은 주로 농촌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추석 성묘나 가을철 야외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병할 수 있다.

물 주사액이 세가지 질환과 발초때 발에 쓰이는걸 예방해 '네가 지 없는' 즐거움 나들이가 되길 바란다. (태영21내과 원장)

### 세계 지원·인센티브 확대해 중소기업 적극 육성하자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에 시달린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고용센터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기 위해 줄을 선다.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쿼터처럼 1년간에 제조업에 배정해주는 외국인 근로자는 4만9000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현장에선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이 멈춰서기도 한다는데, 그와 정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110만명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도깨비 장난인가.

중소기업들은 인력이 10만6000명이나 모자란다고 한다.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한쪽에선 사람이 모자란다고 하는 현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을까? 또 해법은 없는 걸까?

구직자들은 임금과 복지수준에 대한 편견 때문에 중소기업에 아예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굳이 방법을 찾자면 정부가 일자리 확충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보조금과 세금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기꺼워하는 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

세계 지원이나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위해서는 기업에서는 복지혜택이라든가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기업들이 원하는 대졸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대학 진학률은 80%에 이르는 과도한 고학력 현상도 완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졸 인력 채용을 높이는 방안도 더 확대돼야 한다.

즉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률 확대도 고졸 가능인력을 늘리는 일이 시급한 것이다. 기업들이 가만 앉아 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극소수의

자원만 뽑아간 뒤 고졸 채용했다고 생색낼 게 아니라는 뜻이다.

미리부터 기업과 고등학교 간에 산학연계를 통해 취업예정자들에 대한 업무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투입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업들이 미리 시켜주자는 것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야말로 중소기업 인력난과 실업률을 동시에 풀 최선의 해법 아닐까.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중소기업 인력난도 줄이고, 고졸 인력의 취업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현경·목포시 연산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無等鼓

최근 대중문화 화두는 김기덕 영화감독과 가수 사이이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해외에서의 업장난 인기가. 한국에서 시작돼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인정받고 그 인기가 거꾸로 국내로 유입된 '역풍현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차이는 분명하다. 김 감독이 비주류라면 사이는 주류에 속한다. 김기덕 감독은 저예산, 예술영화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이단아 취급까지 받았다. 반면 사이는 데뷔때부터 주류에 속했고, 지금도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다.

김기덕은 비 대중적이지만 사이는 철저하게 대중 친화적이다. 김기덕은 보통사람보다는 일관된 자기 세계를 고집하면서 세계영화계를 열광시키고 있다. 사이는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고 가가가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형이다. 사이가 대중주의 전락이라면 김 감독은 대중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추종하게 하는 작가지주의 전락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락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큰 성과를 이뤘다.

'소통방식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이 불려일으키는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피에타'가 보기에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기가 거꾸로 국내로 유입된 '역풍현상'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사이는 음악을 만드는 아티스트이지만 소통을 위해 B급 스타일을 택했다. 산티와 코믹을 섞은 '강남스타일'을 미국인들은 '펀 송(fun song)'이라고 한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사이를 보고 그냥 웃는다는 얘기가.

작가지주의, 대중주의 든 중요한 것은 소통의 능력이다. 사이는 한글 버전만으로 미국 아이튠즈 음원차트 1위에 올랐고, 미국에서 음반을 발매하지 않아도 빌보드 차트 HOT 100에 올랐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소통의 성공사례가 아닐까.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b>光 卍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滄樂</b> 편집국장 <b>曹慶完</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